

"손흥민, 4골 쇼로 가치 증명…케인과 텔레파시"

등록 2020.09.20 23:06:21



[사우샘프턴=AP/뉴스시스]토트넘 홋스퍼 손흥민(왼쪽)이 20일(현지시간) 영국 사우샘프턴의 세인트 메리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1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라운드 사우샘프턴과의 경기 후반 3번째 골을 넣고 도움을 기록한 해리 케인과 기뻐하고 있다. 손흥민은 전반 추가시간 첫 번째 골에 이어 후반 2분과 19분, 28분에 각각 추가 골을 터뜨리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2020.09.20.

[서울=뉴스시스] 박지혁 기자 = 영국 언론들이 한 경기에서 4골을 몰아친 손흥민(토트넘)을 향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손흥민(토트넘)이 한 경기에서 4골을 퍼붓는 커리어하이를 찍으며 토트넘에 리그 첫 승을 선사했다.

손흥민은 20일(한국시간) 영국 사우샘프턴의 세인트 메리즈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사우샘프턴과의 2020~2021 EPL 2라운드에서 선발로 나서 혼자 4골을 터뜨리며 토트넘의 5-2 역전승을 이끌었다.

2015~2016시즌 EPL에 진출한 손흥민이 리그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4골은 한 경기 개인 최다골 기록이다.

손흥민은 0-1로 뒤진 전반 추가시간 동점골을 시작으로 후반에 내리 3골을 터뜨렸다.

영국 'BBC'는 "4골을 몰아친 손흥민을 사우샘프턴이 제어할 수 없었다"고 했다.

특히 손흥민의 4골을 모두 도운 해리 케인과의 호흡에 대해선 "손흥민과 케인은 서로 텔레파시를 주고받는 것 같은 호흡을 선보였다"고 평가했다.

'야후스포츠'는 "손흥민의 해트트릭으로 토트넘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다. 손흥민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스타였다"며 "가레스 베일이 토트넘을 위해 경기에 나설 필요가 없었다"고 전했다.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던 세계적인 공격수 베일은 전날 7년 만에 토트넘 복귀를 알렸다. 이날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손흥민, 케인과 함께 환상적인 공격 라인업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이날만큼은 베일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손흥민의 경기력이 월등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BBC'는 "베일이 합류하면 손흥민, 케인과 날카로운 공격진을 형성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은다"고 했다.

'텔레그래프'는 "손흥민이 4골을 몰아치면서 토트넘은 리그에서 첫 승을 신고했다. 손흥민과 케인이 베일과 함께 뛸 것이라는 사실이 경쟁 팀들에게 공포의 떨림을 전했다"고 했다.

'미러'는 "손흥민이 4골 쇼를 펼치며 팀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토트넘은 오는 23일 레이트 오리엔트를 상대로 카라바오컵 3라운드를 치르고, 25일 스켈디아(마케도니아)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3차예선을 갖는다.

빡빡한 일정으로 조세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의 출전 시간을 조절하거나 휴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fgl75@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